안병국 1959~

연구

〈 안병국 작가조사 – 연구 – 비평 〉

An Byounggug's Clay Works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 2023 〈작가 조사 – 연구 – 비평〉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안병국 Clay Work's 서설(序說)

최주연(총괄기획, 목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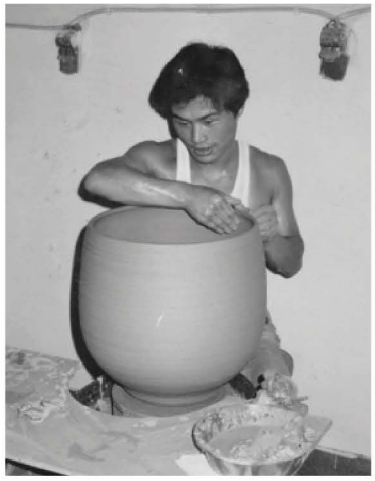
왜 안병국에 주목하는가

작가 안병국은 현대도예를 거론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도예작가는 평생 전통도자나 혹은 조형도자의 한 분야에 치중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안병국은 물레작업을 기반으로 한 전통도자를 시작으로 조형작업을 하다가 다시 전통으로 돌아왔다. 물론 현재 그의 작업성향은 지금 전통도자나 조형도자를 고집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 해서 전통도자의 작업결과와 조형도자의 작업결과가 서로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점은 안병국의 작업세계가 다른 작가와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안병국의 작업을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으며 현대 도예사에서 흔하지 않은 그의 작업세계에 주목하여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다.

안병국작가

변화 가득한 안병국의 이력

안병국은 1959년 1월 경남 밀양에서 출생했다. 6.25 전쟁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부친은 일찍 작고하였으며, 그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했다. 다행이었던 것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술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며 외부로부터 이따금 받아오는 상(賞)은 그가 예술세계에 대한 꿈을 꾸었던 동인(動因)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따라 중학교 2학년 때에 서울로 이사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쳤고 1980년에는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과에 입학하였다.



안병국의 대학시절 물레작업
1984

당시의 학제는 학부제로 3학년에 올라가면서 전공을 정하는 시스템이었으며, 그는 물레 돌리는 선배의 모습에 반해 도예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대학에서 그가 배운 발물레 기능은 평생 전통도자를 만드는 과정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물레작업은 1986년 국민대학교 대학원의 입학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1988년 졸업논문과 시제품 제작은 다양한 물레 기능을 요하는 '엽차용 다기'를 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안병국은 1988년 결혼과 함께 여주의 도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1991~1993년 사이에는 이천시 율면 신추리에 〈안향도방〉이라는 공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도예작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 이 와중에도 그는 개인전을 열었으며 또 다른 고민을 하였다. 그것은 바로 조형도자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큰 모험을 시도한다. 바로 유학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1994년,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탈리아 파엔자의 국립도자학교에 입학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조형도자반에 배정되어 1996년 8월 졸업 때까지 조형작업을 집중적으로 수련하였다. 이때 배운 '이중석고기법'은 모든 조형물을 석고로 떠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법으로 후일 그가 조형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되었다. 이중석고기법은 돌, 나무 겉면, 나무뿌리 등 자연의 대상물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었다. 그가 인생을 걸면서 조형도자를 배우고 모험을 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는 바로 이 기법의 체득일 것이다. 그는 테라코타 작업을 통해 안료, 유약, 기물의 조합에 대한 기능을 터득했고 이때부터 만물의 기원, 영원성, 휴머니즘 등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작품에 표현하려 했다.

미의 단편
50×11×22cm, 1997

귀국 후 안병국은 조형도자 개인전 개최는 물론 여러 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가 당시에 여러 대학에 강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탈리아에서 배운 조형도자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인생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바로 고려, 조선시대의 가마터 발굴조사 작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대전 구완동 분청사기 요지 발굴조사 참여
1996

시흥 방산동 초기청자 요지 발굴조사 참여
1997-1998

가마터 발굴조사는 해강도자미술관과의 인연으로 참여했으며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대전 중구 구완동 청자요지, 정생동 분청사기요지, 경기 광주 건업리 백자요지, 시흥시 방산동 청자요지 등에서 현장조사와 도면 작업 등을 경험하였다. 한동안 조형도자가 관심의 중심이었던 그의 도자관은 이때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던 듯하다. 가마터 발굴조사에서 수습했던 각종 파편들과 작업과정에 필요했던 요도구들, 그리고 가마벽편 등은 그에게 전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후일 그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통으로 회귀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었다.

목원대학교 도자디자인과
학생대상 진흙밟기 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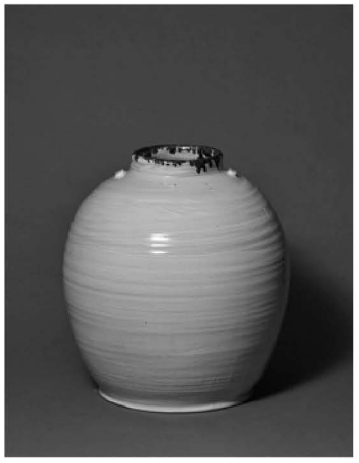
안병국은 2000년 9월 1일, 목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도자디자인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임용 이후 그는 조형도자 관련 과목을 맡았고 학생들에게는 이 분야에 대한 지도를 하였다. 그러나 그가 학부시절에 배웠듯, 도자의 근본은 물레작업이라는 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그는 학생들에게 물레작업을 강조하였고 그로부터 지도받은 학생들은 전국 기능대회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안병국은 현재까지 도자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때는 미술대학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안병국의 활동과 도자관

안병국 작가는 공예의 기본인 전통을 중시하고 학생들에게 '법고창신'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르친다. 그는 전통을 기반에 둔 도자작업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후진양성 뿐만 아니라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의 역사 ·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협업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교수 부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충남도전, 대전광역시전의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위원 등을 맡아 도자공예의 계승,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이런 과정들이 인정되어 그의 작품들은 국내 및 세계의 유수 미술관, 화랑 등에 소장되어 있다.

안병국 작가의 도자관은 전통도자와 조형도자의 두 분야에서 서로 다른 지향점을 보여준다. 전통도자에서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분청사기를 현대적 미감으로 재탄생시키려는데 있다. 주지하듯 우리나라의 분청사기는 자유분방함과 독창성으로 인해 한국인의 미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는 공예 장르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안병국 작가의 작품은 분청사기에 담겨져 있는 오랜 역사의 전통과 현대적인 미감을 함께 보여준다. 그의 최근 작품은 전통적인 형태와 현대적인 장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며 예술성과 실용성의 경계에서 '공예'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법과 재료를 새로운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기품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통의 현대적 변용은 도예가들의 고민이자 화두이며 이를 명확하게 풀어내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조형성을 중시하는 작업을 해 온 안병국 작가가 전통으로 회귀하면서도 과거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작업 과정은 현대 작가로서의 철학 정립과 도예인들이 접한 고민의 해답을 찾아가는 사례로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분청두이호
27×27×30cm, 청자토, 화장토, 분청유
2019



두이호
32×32×40cm, 청자토, 화장토, 분청유
2021

이에 비하여 그의 조형작업은 형이상학적인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족, 인간, 공간, 유한성, 美의 단편, 환희, 무한으로의 회귀 등 그의 작품을 수식하고 있는 주제들은 인간의 기원, 영원성, 자연, 휴머니즘과 같은 무형적인 요소들이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한 과정은 전통물레와는 전혀 다른 도구와 기능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공예적 특성과는 무관한 상징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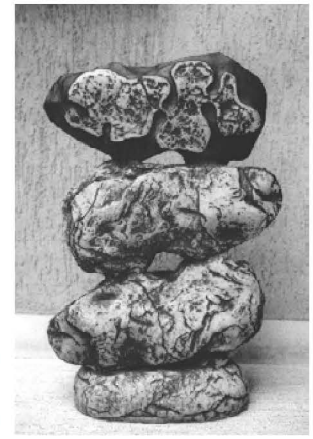
분청사기 귀얄문 사각 양이호
200×200×400mm
청자토, 화장토, 투명유, 환원염 번조, 2003

의적 개념을 표현했다. 그가 구현한 조형도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서양미술에서 발생했던 각종 사조의 특징을 도자를 통해 입체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했다. 조형도자는 그의 도자인생에서 급작스럽게 궤도를 전환한 일탈이었지만, 물레작업의 매너리즘을 탈피하려 했던 흥미로운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청자 사각 양이호
400×400×365mm
청자토, 청록유, 환원염 번조, 2017

안병국 작가로부터 배울 점

안병국은 도자기 작업의 외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도전했다. 그는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도자기 작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근본적인 고민 앞에 서있던 가장이었다. 그럼에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인전을 열었고, 새로운 배움의 길을 위해 적지 않은 나이에 유학의 길을 선택했다. 이러한 판단은 모두가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었다. 그의 도전의식은 그가 평생 현대도예의 길을 모색하는데 다양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도자 이력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안병국 작가는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와 제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La Terra
320×140×480mm
Semire bianco 1,200℃, 산화번조, 1996

안병국은 작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도예가는 대체로 평생동안 젊은 시절에 배운 기예와 철학을 노년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한 분야를 평생동안 섭렵하기도 벅차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병국은 그때마다 과감한 선택을 했다. 그의 출발점이 물레를 활용한 전통도자였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 조형도자를 배웠고 고려, 조선시대의 가마터 조사를 계기로 전통으로 회귀했다. 이 두 영역의 간극은 매우 크고 지향점이 다르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보수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다면 둘 다 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결국 배움에 대한 적극성은 전통도자와 조형도자 두 영역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人
70×70×200mm
조합토, 안료, 저화도 투명유, 라꾸유약
2015

안병국은 도자이력이 40년이 넘는 한국 도예계의 원로이자 현역작가이다. 그의 작업세계와 도자철학에 대한 조사, 연구, 비평 과정은 현대공예에서 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주게 한다. 이 결과물은 향후 젊은 후학들이 작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데 작으나마 지침이 될 것이다.

안 병 국

1959 ~

경상남도 밀양출생

학력 이탈리아 국립도예학교 졸업
국민대학원 조형미술 졸업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 졸업

경력 한국현대도예가회전 · 한국공예가협회전 · 대전도예가회전
(사)한국공예가협회 창립50주년 특별기획전 '공예란 무엇인가'(서울)
Fletcher Challenge Ceramics Award 공모전 수상자 초대전(뉴질랜드)
'Dal Oriente al Ballardin'전(파엔자 이탈리아)
이타미 국제 공모전 수상자 초대전(일본)
관서한국문화원 개원5주년기념 한국현대도예초대전(일본)
충청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청도 소사랑 입체 미술대전 운영위원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 및 지도위원
개인전14회(서울, 대전, 이태리), 그룹전 300여회

현재 목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도자디자인학과 학과장
(사)한국공예가협회 대전·충남지부장, (사)한국현대도예가회 회원
대전도예가회 회원, 도원회 회원,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
남원국제 도예캠프 초대작가

작품소장 이탈리아 국제도자박물관(파엔자 이탈리아), 의흥미술관(중국)
서울 동광교회, 목원대학교 총장실, 골프존 문화재단 외 다수

사람의 손으로 인간을 위한 인간에게 유용한
도자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일이며
인간을 위한다는 일에 거하게 사명감이 느껴질 때는
숙연해지면서 본인이 창작자라는 인식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새겨지고 나의 성형기술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도예라는 것이 참으로 좋구나 하고
생각해 본다.

– 2019. 작가노트 발췌 –

Making pottery that is useful to humans for humans with human hands is a truly sacred work, and when you feel a deep sense of duty in serving humanity, you become solemn, and without realizing it, the awareness that you are the creator is engraved in your mind and you feel confident in your shaping skills. I think it's great that ceramics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 2019. contribution to Artist Notes -

안병국 작가조사_연구_비평
사업기간 : 2022년 8월 ~ 2024년 2월(총 19개월)

총괄기획자
최주연 _ 목원대학교 도자디자인학과 교수

작가
안병국 _ 목원대학교 도자디자인학과 교수

저자
최주연_목원대학교 도자디자인학과 교수 (총괄기획)
이종민 _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김민기 _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연구원)
김세린 _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연구원)
츠츠미 노부코 _ 오사카산업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도예전공 교수(외국필진)

아키비스트
이혜용

번역
푸른번역
PANTRANSNET

디자인 · 출판
디북스

진행보조